

## SNK 전설의 걸작 '메탈슬러그', 텐센트 게임즈가 모바일로 출시한다

- 텐센트 핵심 개발그룹 티미 스튜디오(TiMi studios), '메탈슬러그 코드: J(가칭)' 개발 중
- 텐센트-SNK 파트너십 발표 직후 중국 게임 유저들 사이에서 메탈슬러그 기대감 최고조에 달해
  - SNK, 텐센트와의 파트너십 체결 위해 오래전부터 긴밀히 협의했다



지난 달 27일 텐센트가 온라인으로 개최한 연례 컨퍼런스를 통해 신작 게임 및 파트너십 소식을 공개한 데 이어, SNK가 텐센트와의 파트너십 체결에 대해 세부적인 공식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SNK인터랙티브는 텐센트 산하의 게임 개발그룹인 티미 스튜디오가 현재 SNK 전설의 걸작 IP인 '메탈슬러그'를 활용한 모바일 신작 '메탈슬러그 코드: J(가칭)'을 중국에 출시하기 위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신작의 기반이 되는 '메탈슬러그' IP(지식재산권)는 SNK에서 제작한 횡스크롤 액션 아케이드 게임이다. SNK의 런앤건 게임 계 마스코트인 메탈슬러그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시리즈 발매 20주년을 맞이한 바 있다.

'메탈슬러그 코드: J(가칭)'는 기존 SNK의 원작 메탈슬러그 게임 플레이를 온전하게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클래식 아케이드 슈팅을 이동 중에 두 손으로 즐길 수 있도록 재현할 예정이다. 대신 주인공 '마르코 롯시' 등 4명을 비롯한 캐릭터 디자인과 기타 게임 내 그래픽은 3D로 새롭게 선보인다. 게임을 즐길 유저의 현란한 조작 실력이 각 미션별 클리어에 핵심이 되도록 설계 중이며 초보자 모드를 포함해 다양한 신규 콘텐츠도 반영할 예정이라 전했다.

특히 티미 스튜디오 개발진들은 기존 메탈슬러그 게임플레이 방식을 유지함은 물론 전작에는 없던 다양한 스테이지 구성을 홍보 영상을 통해 예고했다. 이를 본 중국 내 현지 게임 팬들 사이에서는 오랫동안 기다려 온 게임은 물론, 텐센트가 퍼블리싱 할 예정이라는 소식에 기대감이 최고조로 치솟았다.



SNK인터랙티브 전세환 대표는 "중국 최대 게임사인 텐센트와 파트너십 체결을 위해 오래전부터 긴밀히 협의해 왔었다"며 "SNK의 대표 IP중 하나인 메탈슬러그는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에서는 아직까지 두터운 팬층을 보유하고 있어 출시 후 흥행은 매우 긍정적인 것이다"고 전했다.<끝>

#### <자료 문의>

SNK인터랙티브 홍보담당 전성국 대리 (010-5477-0979 / [skchun@snkcorp.co.kr](mailto:skchun@snkcorp.co.kr) )

SNK인터랙티브 홍보담당 이은수 사원 (010-4491-7537 / [eslee@snkcorp.co.kr](mailto:eslee@snkcorp.co.kr) )

#### <SNK 인터랙티브 소개>

SNK는 일본 오사카에 본사를 둔 게임회사로 일찍이 전 세계에 수많은 게임을 제공하여 세계적으로 많은 팬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국내에서는 올 상반기 증시에서 화제를 모은 공모기업 중 하나로 '더 킹 오브 파이터즈' '아랑전설' '메탈슬러그' '사무라이 스피리츠(사무라이 쇼다운)' 등 1990년대를 풍미한 인기 게임의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흥행한 IP들 외에도 콘솔과 모바일 게임을 지속해서 개발 및 판매하며 성장 동력으로 앞세우고 있으며, 신규 IP 확보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서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